

“가야할 길 아직 많은 노인복지”

연꽃마을 설립 20주년 맞아

백일장 · 예술제 · 노인복지 심포지엄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 법인중 하나인 연꽃마을이 8월 19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해 무료노인요양원, 실비노인요양원, 전문노인요양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사업소 등을 위탁 경영해왔다.

연꽃마을의 20주년 기념행사는 6월 10일 ‘전국 노인 백일장’, 14일 ‘연꽃마을 예술제’, 9월 7일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 10월 중 ‘20년 사반포시’ 등이 계획되었다.

지난 2000년 설립 10주년 때 “조출한 기념행사라도 하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각현 스님은 마다했다.

스님은 “그때는 한일이 없어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책임감 때문에서라도 몇 가지 기념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재숙 연꽃마을 홍보담당은 “20주년 기념행사들은 지금까지 연꽃마을에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도

움을 주신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기회와 노인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은 미국, 스웨덴, 러시아, 일본 등 복지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대내외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이다.

현재 연꽃마을은 40여 산하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중 파라밀요양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99.61점(전국평균 76.91)을 받아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위탁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뽑혔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 박왕호 관장은 “연꽃마을은 복지관 시설이나 이용자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20년간 역동적으로 도전한 결과 연꽃마을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계에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꽃마을은 2010년부터 스님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고 스님 가족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이 파라밀병원에서 요양중인 한 스님을 위로하고 있다. 연꽃마을은 1월부터 스님들의 간병비를 후원금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들의 간병비를 50% 지원하는 등 승가의 의료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저촉받기 때문에 현재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의 파라밀요양원에서 요양중인 스님 다섯 명과 스님 가족 일곱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각현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에 매진한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출가했지만 오히려 속가 가족들이 노스님들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을 보고

스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미진하지만 연꽃마을이 마련한 의료복지 지원에 스님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은 길보다는 가야할 길이 많은 것이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타 종교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테마가 좀 더 따뜻하게 지역 사회에 복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이웃종교

“사랑은 상대의 공간이 돼주는 것”

성공회대 강연 지월 스님

기독교계 대학의 채플시간에 스님이 강단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월 스님(북한산 심곡암 부주지·사진)은 4월 7일 성공회대 성미카엘 예배당에서 220여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지월 스님은 학생에게 눈을 감고 심장에 손을 대라고 말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자유와 평화, 진실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스님의 발원과 함께 강연이 시작됐다.

지월 스님은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하는 종교다”며 “2500년 전 부처님은 건강, 가족과의 갈등, 공허함, 외로움 등의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 여러분도 여러



가했고 깨달음을 이뤘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명상의 맛도 보여줬다. 10분 정도의 명상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망울이 맑아졌다.

스님은 욕심·화냄·집착 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귀는 때 집착을 버리면 감정도 기쁨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왔다.

이때 스님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안의 물질과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들어서는 공간이 돼주는 것이다. 연애할 때 집착하면 상대방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며 처방을 내렸다.

성공회대 이정구 교목실장은 “지월 스님의 강연에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젊을 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편견을 깨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한다”며 “기독교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눈망울이 맑아졌다.”

스님은 욕심·화냄·집착 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귀는 때 집착을 버리면 감정도 기쁨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왔다.

이때 스님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안의 물질과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들어서는 공간이 돼주는 것이다. 연애할 때 집착하면 상대방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며 처방을 내렸다.

성공회대 이정구 교목실장은 “지월 스님의 강연에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젊을 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편견을 깨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한다”며 “기독교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눈망울이 맑아졌다.”

스님은 욕심·화냄·집착 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귀는 때 집착을 버리면 감정도 기쁨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왔다.

박선주 기자

어르신 봉제기업 운영

은평노인복지관, 스트레스 강좌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용)은 어르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3월 26일 ‘스트레스 해소수(手)교실’을 개강했다.

수(手)교실은 복지관 이용 20여 어르신이 3~12월 매달 넷째 주 금요일 북한산공원에서 스트레스 지수 검사, 손 체조, 자연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은평노인복지관 백미영 홍보팀장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유익한 여가생활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서울시·은평

구의 공동 지원으로 어르신 10명을 모집해 ‘시장형 봉제 사회적 기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봉제 사회적 기업은 봉제나 미싱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봉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동사업단을 꾸려 앞치마, 장갑, 시장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고, 이를 판매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매달 기본급 10만원과 사업 수익을 배분한 금액을 더해 급여를 받게 된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이를 위해 만 65세 이상의 은평구 거주 어르신 가운데 봉제 기술자를 4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02)385-1351

박선주 기자

다문화 대안학교 최초 설립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학교를 이

탈하거나 재혼을 한 부모를 따라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최초로 설립된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김의정)는 4월 9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 장 자승), 사단법인 4월회(회장 유세희), 국회다문화포럼(대표 진영)과 협약식을 맺고, “중간 입국 자녀와 학교 이탈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Rainbow Pre School)’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레인보우 프리 스쿨(Rainbow Pre School)은 부모님의 재혼 등으로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해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다문화 대안학교는 2011년 학생과 교사를 선발해 2012년 상반기에 개

교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09)에 따르면 중간입국 자녀의 취약률은 초·중·고를 통틀어 52.9%에 불과한 편이다.

하지만 중간 입국자들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다니더라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결석을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한국다문화센터는 메인보우 협장단 연습 공간이었던 명락사 ‘다문화 교육관’을 개조해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원과 중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할 ‘다문화 공부방’을 5월에 개소한다.

다문화 공부방을 통해 서초동의 다문화대안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다문화 자녀의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선주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창업아카데미

자격증반 · 실버밴드

조계종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준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사회 기능 재창출 지원 사업에 주력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사진)은 4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복지관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 등을 발표했다.

복지관은 2010년 운영 목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인문화 기 반마련’로 삼았다. 이를 위한 중점 사업으로 △인재마루 △실버밴드 △어르신 온라인창업아카데미 △가족 준비·우울증 예방 상담 △시간 장애인 안마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매진한다.

인재마루는 준 고령자의 사회적 기능 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자·일본어,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반과 PC수리 등의 전문 기술반, 미술, 동화연구, 손뜨개 등의



인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문화’라며 “어르신들의 교육이 복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토대로 사회로 돌아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정규교육을 받은 준 고령자(베이비붐세대)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며 “복지관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준 고령자가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 사회 환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실시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효사랑’ 사업은 종로구청이 4억여 원을 지원한 복지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복지관 김해숙 부장은 “장애인들

에게는 일자리 되고 안마서비스를 제공받는 많은 어르신들(하루 평균 120명)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은 실버밴드 단원 모집과 공연을 준비 중이다. 종로구청이 7700만원을 지원한 실버밴드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활동비와 연습공간을 제공받는다. 실버밴드는 연말에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봉사 등을 진행한다.

5월 12일에는 2009년 화재로 몸살을 앓았던 낙산에 어린이들과 함께 들꽃 심기 체험학습과 대학교 축제와 연계한 바자회(5월 10일~14일), 21일에는 경북 상주 관음정사에서 도시 농촌 교류 프로그램 ‘징검다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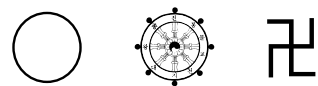
관음정사에서 열리는 징검다리는 복지관 어르신들의 공연, 안마 봉사 와 함께 서울 종로구 예빈인과 의료진의 의료봉사가 진행된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5400여 어르신이 복지관 회원으로 등록돼 하루 500여 명이 치매·건강·교육·취미·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박선주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범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흥이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중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평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중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